애경유화 대표이사 부규환 사장

전기철 대표는 부회장 승진 ... 애경그룹 1월4일 임원인사

애경그룹은 1월4일 애경유화는 신임 대표이사에 부규환 현 전무이사를 선임하는 등 임원인사를 단행했다.

부규환 전무의 대표이사 선임은 전기철 대표이사의 부회장 승진에 따른 것이다. 전기철 부회장은 대표이사 직은 맡지 않는다.

◇애경 부사장 최창환 ◇애경유지(애경백화점) 전무 이남용 서광준 ◇애경유화 부회장 전기철, 대표이사 사장 부규환, 전무 김명박 ◇애경화학 부회장 임성주, 대표이사 사장 이수맹, 전무 김장일 ◇애경PNC 전무 및 AK VINA 법인장(베트남 현지법인) 최경엽, 이사 조영복 ◇애경개발 부사장 채승석 ◇코스과 부사장 곽홍수 ◇애경소재 대표이사 상무 이순용

<화학저널 2005/01/05>